

로마시대 공공 바실리카의 평면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 Analysis of Ground Plan of the Civil Basilica in the Roman Period

Author 홍순명 Hong, Soon-Myung / 정희원, 삼육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공학박사

Abstract The origin of the Roman public basilica is Rome's indigenous style morphologically but actually it seems that developed the Greek semi-open style stoa into the Roman practical interior space. In the early ages, the arrangement of Roman forum had been planned high symbolical temple as the center but gradually changed into the basilica centered which were used often by citizen. Through the Roman period, the important types of early Roman basilica have Fano basilica in the first century BC, Pompei basilica of mid period in the first century AD, Doclear basilica with apse as late type in the second century AD. Pompei type well characterized the feature of Roman public basilica among them.

The result of the floor plan analysis shows that the long side access to the interior space is over 76 percent of examples and nearly 70 percent have no apse and the average of vertical horizontal length ratio presents as 1:2.3. The typical plan of Roman public basilica can be defined that most of access are being entered from one of the long side, and most of basilica have no apse, and normally having inner columns arranged in one or more concentric rectangles around nave as a center.

Keywords 바실리카, 공간분석, 배치, 평면계획, 네이브, 앱스
Basilica, Space Analysis, Layout, Ground Plan, Nave, Apse

1. 서론

1.1. 연구의 목적과 방법

건축역사에서 그리스 로마(Greco-Roman)의 위치와 역할 그리고 영향력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리스 건축은 과거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등 고대의 건축문명들을 수용 발전시켜 오늘날 고전(classic)이라 불리우는 인류 문명의 중요한 양식을 형성하였고, 로마건축은 그리스 문명을 체계화하고 실용화하므로 건축공간의 새로운 장을 열어 현대건축의 초석을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로마는 기원전 2세기를 전후하여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미 세계적인 국가로 성장발전하고 있었다. 그 본거지인 이탈리아 반도를 넘어서 유럽과 북아프리카 그리고 소아시아까지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 광활한 제국의 영토를 관리하고 통솔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계획한 것이 각 지역마다 식민도시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리고 로마와 그 도시들을 연결하는 도로망을 형성하여 지중해 연안의 모든 지역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관리하게 되었다.

그들이 여러 지역에 거점도시를 형성하면서 사용한 도시 형태는 약간은 다르지만 거의가 유사하였다. 기본적으로 히포다무스(Hippodamus)의 격자형 도시 패턴을 적용하였는데 먼저 도시의 남북을 관통하는 카르도(cardo)와 동서를 관통하는 데쿠마누스(decumanus)라는 주도로를 만든 다음 그 중심부에 로마의 포룸(forum)을 형성하였고 주변에 신전, 바실리카, 쿠리아(curia) 그리고 원형극장이나 공중욕장 등을 배치¹⁾하여 도시의 기본 골격을 형성하였다.

그 동안 신전건축이나 원형극장 등은 비교적 자세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후에 기독교 바실리카 교회의 원형이 되는 로마의 공공 바실리카 건축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바실리카가 기독교 교회 건축의 모델이 된 것 외에도 로마에서 시민정신이 증대함에 따라 시민생활에 더욱 밀접한 관련을 맺으므로 후에는 신전보다 바실리카가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는 사실

* 본 연구는 2010년도 삼육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과제임.

1) D. S. Robertson, Greek & Roman Architecture, Brooke Crutchley, 1972, pp.189-190

은 이의 건축적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바실리카 건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로마건축에서 새롭게 등장한 공공 바실리카 건축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밝혀보고자 한다. 먼저 지금까지 연구된 공공 바실리카의 분류유형을 조사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한 후, 로마 통치 지역 안에 있었던 30개의 바실리카 건축평면을 배치, 규모, 회랑유형, 앱스 유무, 진입방향 등을 상세히 분석하여 기독교 바실리카와는 구별된 로마 공공 바실리카 건축만이 가지고 있는 건축적 특성들을 밝혀내는 것을 본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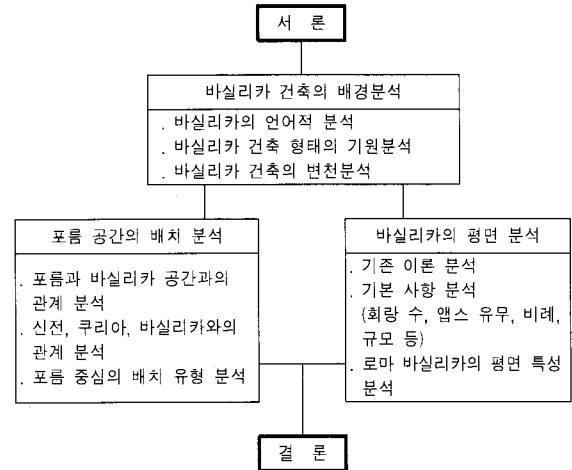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로마제국의 형성기인 기원전 3세기부터 로마의 공공 바실리카건축이 기독교 바실리카교회로 대체되는 기원후 4세기까지로 연구 범위를 정하였고, 공간적 범위로는 로마를 중심으로 이탈리아 전역과 북으로는 영국과 독일, 서로는 스페인과 에스파니아, 남으로는 북아프리카의 도시들, 동으로는 그리스, 소아시아, 시리아까지 당시 로마가 통치하고 있던 지중해 연안 전 지역이 포함된다.

본 연구는 이탈리아 지역의 대표적인 바실리카 12곳 그리고 이탈리아 외지역의 지방도시 18개의 바실리카 총 30개의 로마 바실리카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2002년 보간 월류(Vaughan Walthew)가 분석한 초기 로마 바실리카의 연구²⁾에서 이태리와 스페인 지역에서 11사례, 그 외 로마 속주에 속하는 아프리카와 그리스 등지에서 22사례 총 33사례를 분석하여 지금까지 로마 바실리카 건축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바실리카평면 자체만 분석한 상기 연구와는 각도를 달리하여 포룸과 바실리카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선정된 30개의 샘플 개수는 지금까지 발굴된 로마 바실리카 건축 사례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으로 볼 때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되며 또한 로마 공공바실리카의 중요 유형은 주로 로마지역 바실리카의 분석을 통해 이루어져왔고 그 외의 지역에서 발굴된 건물은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으나 본토 바실리카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므로 중요성 큰 로마지역의 바실리카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연구의 타당성 면에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인다.

전체 분석의 틀은 바실리카의 어원, 기원, 변천 등을

본 연구의 배경적 요소로 분석하였고 포룸을 중심으로 바실리카, 신전, 쿠리아의 배치 특성을 파악한 후 이번 연구의 목표인 바실리카 평면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최종결론을 <그림 1>과 같은 과정을 거쳐 도출하였다.



<그림 1> 분석의 틀

연구의 방법으로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 그리스 로마 지역을 제외하고는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고고학적 발굴 결과에 대한 문헌을 중심으로 연구하였으며 일부는 고대도시를 고증을 통해 모델로 만들고 그 영상을 디지털화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연구, 분석작업을 진행하였다.

2. 바실리카 건축의 형성

2.1. 언어분석

문자적 의미의 바실리카(basilica)는 상가재판소(商街裁判所)를 뜻한다. 재판소가 또한 거래소였다는 것은 '공정한 재판'이라는 개념과 '군중의 목전'이라는 개념에 따라 시민들이 모이는 장소로 재판과 상업이 겸용으로 이루어지도록 기능화한 건축이었음³⁾을 말해주고 있다.

basilica라는 라틴어는 그리스의 *Basilike Stoa*라는 용어에서 연유된 것⁴⁾으로 이 뜻은 왕의 공회당(royal hall) 또는 왕의 주랑현관(royal portico)을 의미하는 것으로 로마 바실리카의 근원이 그리스의 스토아와 어원적으로나 형태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stoa의 복수형은 stoaes로 그리스 건축에서 독립구조의 콜로네이드(柱廊) 또는 지붕이 있는 보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건물 뒷벽과 나란히 1개 이상의 기둥 열을 세워 지붕을 떠받치도록 한 길고 개방된 건물을 일컫기도 한다. 스토아는

2) Christopher Vaughan Walthew, A Metrological Study of the Early Roman Basilicas, the Edwin Mellen Press, Mellon Studies in Architecture Vol. 8, 2002, 이 책은 로마 바실리카에 대해 상당히 세밀하고 정확한 도면작성과 깊이 있는 분석을 하고 있지만 바실리카 건축계획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포룸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포함 되어있지 않다.

3) 박학재, 서양건축사, 상조사, pp.348-349

4) Ancient Roman Architecture: Colosseum, Architecture of Ancient Rome, Vitruvius, Roman Villa, Fishbourne Roman Palace, Basilica, Books LLC, 2010, p.109

시장과 신전을 둘러싸고 있어서 상업의 중심지이자 공공 산책로로 쓰였다. 방은 보통 콜로네이드 뒤편에 있으며 때로는 스토아 위에 2층을 올리기도 했다. 포티코는 열주랑이 있는 현관 또는 같은 간격으로 배열된 기둥으로 받친 지붕이 덮인 보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건물에 붙이지 않고 따로 짓기도 한다. 포티코는 그리스 신전건축의 주요특징이며, 따라서 로마 건축과 이후 고전건축의 영향을 받은 모든 구조물에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요소 중 하나이다.

건축적 의미에서 '바실리카'라는 용어는 고대 로마와 그리스도교 시대 이전 이탈리아의 시장, 관공서, 지붕이 덮인 야외극장, 강당 등 큰 지붕이 있는 공공건물을 가리키는 데 쓰였으나 점차 특정 형태를 지닌 건물만을 가리키게 되었다. 이 건물은 내부가 개방된 공간으로 되어 있는 직사각형 건물로, 기둥들로 구분되는 아일(aisle)들이 달려 있고 큰 건물의 경우는 기둥들이 내부 가장자리를 빙 둘러서 있기도 하였다. 내부공간의 한쪽 또는 양쪽 끝에는 올라설 수 있는 연단이 있었는데 바실리카를 재판소로 쓰는 일이 점차 많아졌던 BC 1세기에는 집정관이 사용하도록 건물 끝에 반원형 돌출부를 내어 연단을 만들기도 하였다.

시민성과 공공적 성격이 강조되었던 로마의 바실리카 건축은 콘스탄티누스 기독교 공인 이후 바실리카 교회(basilica church)의 원형이 되었고 그 이후로 바실리카라는 용어는 바로 기독교 교회(christian church)를 뜻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바뀌어지게 되었다.

2.2. 형태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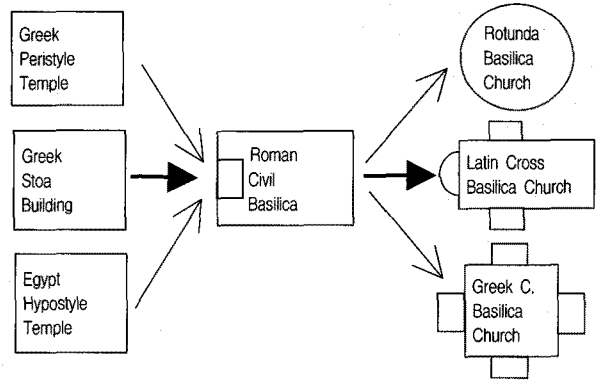
로마 공공 바실리카는 로마시대에 처음으로 나타난 건축 양식이지만 그 유래는 그리스의 회랑식 건축인 스토아 뿐 아니라 이집트의 다주실 공간에 나타난 고창채광 즉 클리어스토리(clearstory)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리스의 주랑식 시장이었던 스토아 바실리카를 그 선례로 보고 있다. 바실리카와 스토아 사이의 관계는 포룸과 아고라 사이의 관계와 유사했다. 바실리카는 천장이 덮인 종합시민공간이란 점에서 스토아의 후신이었다. 두 양식 사이에는 차이도 있었는데 스토아가 열주를 가지면서 반 개방형이었던 것에 반해 바실리카는 사방이 막힌 완전 실내 공간⁵⁾이었다.

기록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포르시아(Porcía)바실리카는 기원전 184년에 건립된 □자형평면에 중정이 개방된 건물이었으나 추후 지붕을 개조하여 처마높이를 주변 주랑보다 훨씬 높여 고창채광을 가능하게 하였고 단변중앙에 반원형 앱을 증설함으로써⁶⁾ 이른바 바실리카 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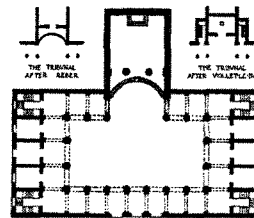
식의 기본적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로마에서 크게 발전하였던 바실리카 건축양식은 후에 기독교 교회건축양식으로 채택되므로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의 건축을 바실리카교회가 주도하게 된다는 점에서 로마의 공공 바실리카양식은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그 관계를 도면으로 표시하면 <그림 2>와⁷⁾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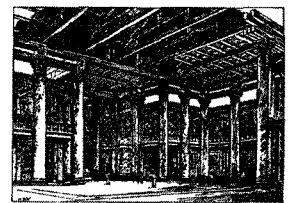


<그림 2> 바실리카 건축의 변천과정

로마 공공바실리카는 두 개의 중요한 원형적 유형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의 형태가 <그림 3>의⁸⁾ 파노(Fano) 바실리카이다. 이는 고대 건축의 기준을 제시했던 비트루비우스가 직접 설계하고 감독⁹⁾한 바실리카로 전체 가로세로비 1:2의 장방형 건물로 장변 측 중앙에 아우구스티누스 에이디스(aedes Augusti)¹⁰⁾ 또는 트리뷰날(tribunal)이라 불리는 부속공간이 위치하고 맞은편 장변 측에 주출입구를 형성하고 있었다. 내부는 4*8의 기둥으로 중앙 네이브(nave)를 감싸고 있으나 에이디스 전면의 기둥은 생략하므로 두 공간의 연결과 에이디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그림 3> 파노 바실리카 평면



<그림 4> 파노 바실리카 내부

7) Robertson, p.268에서 로마 바실리카 건축의 기원으로 그리스 아고라 열주랑 스토아를 먼저 언급하였고 Leroux는 바실리카 유형으로 그리스 신전 유형과 이집트 Hypostyle 신전의 오리엔탈 타임을 언급하면서 바실리카와의 연관성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공공 바실리카의 기독교 바실리카로 발전과정은 L. Michael White, The Social Origin of Christian Architecture, Trinity press international, 1990, p.6, 홍순명, 초기기독교 교회건축의 형성모델에 관한 연구(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26권 제1호) p.247 참고 바람.

8) M. H. Morgan 편역, Vitruvius 건축십서, 오덕성 역, 기문당, 1989, p.144

9) Ibid., p.143

10) aedes는 temple이라고 번역되지만 이는 독립된 신전건물이라기보다는 바실리카 내에 부속된 성단(聖壇)의 의미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5) 임석재, 서양건축사, 땅과 인간, 북 하우스, 2003, p.355

6) 박학재, op.cit., p.3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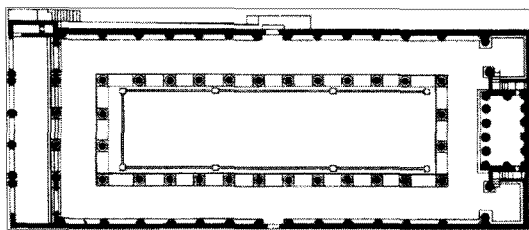
이 건물은 이후에 지어지는 많은 바실리카의 원형이 되었고 특히 장변 측을 포룸 측 외부공간에 개방하여 시민들의 출입이 원활하게 하였다. 후에는 트리뷰날 전면에도 정상적으로 연속된 기둥을 설치할 뿐 아니라 이 부속 공간을 건물 단변 끝으로 이동시키고 바실리카 내부는 한 줄 또는 두 줄의 기둥이 네이브를 둘러싸 바실리카 전체가 네이브 중심의 공간을 형성하였다. 이는 로마 공공 바실리카의 내부공간을 황제의 권위를 상징하는 트리뷰날 중심의 정적인 공간으로 만들기보다는 시민들의 상업적,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는 철저히 시민위주의 기능적이고 동적인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로마 공공 바실리카를 대표하는 두 번째 유형은 <그림 5>의 폼페이에서 발굴된 폼페이 바실리카이다. 이는 첫 번째 유형의 바실리카의 부속공간이 장변 측에서 단변 측으로 이동하면서 평면전체가 훨씬 기능적으로 바뀌었을 뿐 아니라 더 발전된 장축형의 두 번째 유형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폼페이 바실리카는 전체 평면이 외부에 부가된 공간이 없는 가로세로비 1:2.7의 단순 장방형 건물로 트리뷰날의 기능이 내부로 들어와 단변 끝부분에 위치하므로 전체 구조가 4*12의 기둥으로 네이브를 감싸고 있는 단순하고도 기능적인 바실리카의 전형적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건물의 단변 끝부분에는 트리뷰날이 배치되어 있고 그 맞은 편 단변 전체가 개방되어 주출입구를 형성하고 있고 장변의 중앙부분 양측모두 기둥 한 칸을 개방하여 부출입구를 만들므로 전체 동선의 흐름이 원활하게 하였다.

폼페이 바실리카 중심공간은 그리스의 아고라와 같이 중앙부에 지붕이 없이 열주랑으로 이루어졌으며 내부 기둥 주위로 배수구 흔적이 발견되었고 중앙기둥과 벽면기둥의 높이가 동일하다는 주장¹¹⁾에서 폼페이 바실리카는 아직 고장채광을 위한 클리어스토리가 형성되기 이전의 초기 바실리카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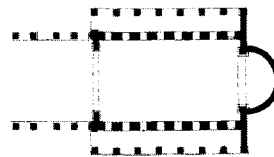


<그림 5> 폼페이 바실리카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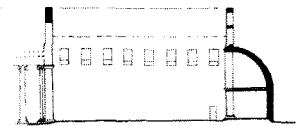
상기의 로마 공공 바실리카의 중요 유형이 되었던 파노 바실리카는 후에도 그 형태의 바실리카가 이탈리아와 로마 속주의 여러 도시에서 건축되었으나 비정형이라는 배치계획상의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부속공간이 내부로 편입하여 전체가 장방형의 정돈된 외관과 내부를 형성하

는 폼페이 유형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 이후에 건축되는 대부분의 로마 공공바실리카는 상기 두 유형의 범주 안에서 부분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발전하였다. 그러나 <그림 6, 7>의 보스트라(Bostra) 바실리카는 기존 두 유형에서 벗어난 특수형 건물로 이는 이후 기독교에서 로마 바실리카를 자신들의 건축원형으로 받아들여 발전시킨 앵스 중심의 전형적인 기독교 바실리카 교회의 형태를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림 6> 보스트라 바실리카 평면



<그림 7> 보스트라 바실리카 단면

이와 비견되는 유사한 바실리카는 트리에(Trier)바실리카로 볼 수 있으나 두 건물 모두 AD 3세기 후반의 바실리카로 당시 융성하고 있었던 기독교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로마 공공바실리카가 기독교 바실리카의 형태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3. 의미 분석

로마 도시에 건축된 공공 바실리카는 도시민의 편의와 유익을 위하여 건축된 것으로 시민들이 이곳을 재판정, 시장, 공공 모임장소로 사용하면서 서로의 시민정신을 기르는 중요한 장소가 되었다. 로마의 황제들도 자신의 통치 기간에 규모가 크고 위엄 있는 바실리카를 건축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하였던 것 같다.

공공바실리카의 규모를 살펴볼 때 로마에 위치하거나 황제가 직접 건축한 황제 바실리카는 그 규모가 일반 바실리카보다 엄청나게 커서 그 건물의 웅장함으로 국가의 위엄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전의 고대 도시들이나 이후의 기독교 바실리카가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건축특성을 보인 반면 로마 공공 바실리카는 전시에 보기 드문 포룸이라는 거대한 외부공간과 바실리카라는 효용성 있는 내부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렇게 열린 공간을 통하여 개방된 도시 활동을 통하여 직접 국사에 참여하므로 로마제국의 시민으로의 자긍심을 높이고 스스로의 원활한 경제 활동으로 개인의 유익과 도시의 발전¹²⁾을 동시에 이룰 수 있었다.

기원전 1세기경의 포룸의 중심은 신전이였다. 이는 신권사회가 보여주는 일반적인 특성으로 볼 수 있다. 그

11) Robertson, op.cit., p.268

12) Vitruvius, op.cit., p.141

후 포름에서의 신전과 바실리카는 보통 마주보며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신전이 황제의 왕권을 대표한다면 바실리카는 시민권을 대표하는 특성을 가졌기 때문이다. <표 2>에 나타난 병렬 대면형은 신전과 바실리카 사이의 이러한 대등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한편에는 두 개의 신전을 배치하고 맞은편에는 시민권을 대표하는 바실리카와 쿠리아를 배치하였다. 이는 고대사회에서 결코 볼 수 없는 포름과 바실리카라는 공공공간을 통하여 시민성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었다.

기원후 2세기 트라야누스 황제 때 건축된 트라야누스 포름에서의 바실리카 배치는 매우 의미 있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었다. 기원전 1세기 이전에는 신전중심의 공간형성, 기원전 1세기를 지나서부터는 신전과 바실리카가 마주보며 건축되는 대등한 배치, 그리고 2세기 트라야누스 포름에서는 바실리카가 포름의 중심에 자리잡게 되었고 신전은 바실리카 뒤에 숨어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 바실리카는 크기, 기념비성, 기능, 상징성 등 모든 면에서 기존 신전의 위치를 밀어내고 포름의 중심¹³⁾을 이루게 되었다.

3. 바실리카 건축의 공간분석

3.1. 도시 구조와 특성 분석

본 연구를 위해 선정한 30개의 바실리카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로마의 중심이 되는 이탈리아 지역에서 12개, 프랑스, 독일 등 북유럽이 6개, 아프리카 지역이 4개, 그 외 포르투갈, 불가리아, 그리스, 시리아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시기는 BC 2세기에서 AD 4세기에 걸쳐 로마제국 관할 도시들에 건축된 바실리카들이다.

로마의 도시는 고대도시 가운데 가장 체계적이고 기능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정복한 대제국을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 곳에 군사 요새(要塞)를 건설했으며 이것이 후에 도시발전의 근간이 되었다. 로마의 주요도시들은 거의 표준화된 계획방식¹⁴⁾이 적용되었는데 가장 먼저 도시를 직교하는 2개의 축을 기본으로 하여 격자형 가로망들을 형성하였다. 이 두 대로를 따라 시가지를 4분할하였다. 두 개의 중심 도로가 교차하는 곳에 공공포름(civil forum)을 배치하였고 이 공간을 중심으로 바실리카와 신전 그리고 의사당, 시장 등이 배치되면서 도시의 중심지역¹⁵⁾을 이루게 되었다.

로마 이외의 도시들은 식민지 성격의 지방 도시들로 크게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첫째는

<표 1> 조사대상의 도시와 바실리카

지역구분	도시, 국가	개략 연대	바실리카 명칭
이탈리아 지역 12개 바실리카	Rome, Italy	BC 179	Aemilia
	Cosa, Italy	BC 150	Cosa
	Ardrea, Italy	BC 100	Ardrea
	Pompei, Italy	BC 1세기	Pompei
	Ostia, Italy	BC 1세기	Ostia
	Fano, Italy	BC 1세기	Fano
	Rome, Italy	BC 46-AD 25	Julia
	Rome, Italy	AD 1세기	Subterranean Basilica
	Rome, Italy	AD 90	Dormus Flavius
	Veleia, Italy	AD 1세기	Veleia
	Rome, Italy	AD 112	Ulpia
	Rome, Italy	AD 310	Maxentius
이탈리아 외 지역 18개 바실리카	Leptis Magna, Libya	BC 1세기	Leptis Magna
	Caesareum, Libya	BC 1세기	Cyrene Caesareum
	Timgad, Algeria	AD 100	Timgad
	Djemila, Algeria	AD 1세기	Severi
	Rucino, France	AD 1세기	Rucino
	Glanum, France	AD 1세기	Glanum
	Conimbriga, Portugal	AD 1-14	Conimbriga
	London, England	AD 60	London
	Caerwent, England	AD 75	Caerwent
	Corinth, Greek	AD 1-2 세기	Corinth 1,2,3
	Nicopolis-ad-Istrum, Bulgaria	AD 106	Nicopolis-ad-Istrum
	Lugdunum, France	AD 2세기	Lugdunum
	Doclea, Montenegro	AD 2세기	Doclea
	Bostra, Syria	AD 3세기	Bostra
	Trier, Germany	AD 4세기	Trier

콜로니아(colonia)라고 부르는 로마의 식민도시들로 로마나 라틴시민들을 이주시켜 건설한 것으로 도시는 성벽으로 둘러싸인 격자형 가로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그 지역 통치의 중심이 되었고 두 번째는 카스트룸(castrum)이라고 불리는 병영 도시로 변경지대의 군사 주둔지에 건설한 요새화한 도시로 공간구성은 통치와 건설에 용이한 격자형이었으며 세 번째는 런던니움(Londinium)이라 불리는 교통적 요충지에 건설된 상업적 식민도시로 현존하는 유럽도시의 기원¹⁶⁾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3.2. 바실리카 배치분석

로마도시의 중심부에는 포름이라는 거대한 개방공간이 형성되어 그곳에서 모든 시민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포름 공간을 둘러싼 구성은 바실리카, 신전, 쿠리아(curia)¹⁷⁾, 시장, 공중욕장, 원형극장 등이 있었으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바실리카와 신전 그리고 쿠리아를 중심으로 그 배치 특성을 분석하였다.

포름을 중심으로 한 바실리카 배치유형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병렬 대면형, 병렬 대각형, 삼면 배치형, 직선 배치형의 4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여기에 속하지 않는 형태는 특수형에 포함시켜 총 5개의 유형으

13) 임석재, op.cit., p.357

14) John E. Stambaugh, the Ancient Roman City,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8, pp.116-122

15) Robertson, op.cit., pp.189-190

16) 김철수, 도시공간계획사, 기문당, 2009, pp.257-258

17) Curia는 고대 로마에서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구분하는 단위로서 시민들의 집단을 구성하는 기본구조가 되었고 초기 로마의 군사조직의 기초를 이루었다. 쿠리아는 그러한 집단들이 모이는 장소 또는 원로원 의사당과 같은 회합 장소를 의미한다.

로 포룸공간의 형태를 분류하였다. 상기의 배치유형은 기능적 요소로 분류한 것이 아니라 포룸이라는 주 공간을 중심으로 배치된 바실리카와 신전 그리고 쿠리아를 시각적이며 기하학적 형태를 개념화하여 유형분류를 시도하였다.

포룸 배치유형에서 병렬 대면형은 포룸의 한쪽 면에 바실리카와 쿠리아를 병렬로 배치하고 바실리카와 대면해서 맞은편에 신전을 배치하는 유형으로 신전보다는 시민의 공간인 바실리카와 쿠리아의 중요도가 더 높아지는 형태로 드제밀라(Djemila), 팀가드(Timgad)¹⁸⁾, 구 랩티스 마그나(Leptis Magna old) 바실리카가 여기에 속한다.

<표 2> 포룸 주변 건물배치 유형

배치유형	배치개념	유형의 대표 사례
병렬 대면형		 Leptis Magna old basilica
병렬 대각형		 Conimbriga basilica
삼면 배치형		 Pompei basilica
직선 배치형		 Ulpia basilica

F: Forum, B: Basilica, T: Temple, C: Curia

병렬 대각형은 포룸을 중심으로 한쪽 면에 바실리카와 쿠리아를 병렬로 배치하고 신전은 바실리카와 대면하지 않고 대각으로 배치하는 유형으로 코사(Cosa), 코넬부리가(Conimbriga), 글라눔(Glanum) 바실리카가 여기에 속한다. 삼면배치에서는 바실리카, 신전, 쿠리아가 각각 포룸의 세면에 배치되어 있는 형태로 에이밀리아(Aemilia), 폼페이(Pompei) 바실리카가 대표적 유형으로 볼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포룸, 바실리카, 신전이 일직선으로 배치된 유형은 바실리카 울피아(Ulpia)가 있다. 그 외 포룸 공간 중심에 신전이 배치된 리비아의 키레네(Cyrene) 바실리카 등은 특수형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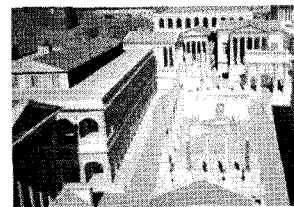
3.3. 바실리카 외부 공간분석

바실리카 공간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포룸이라는 모공간(母空間)과의 관계이다. 그리스의 아고라에서 연유된 포룸은 로마의 특성에 맞게 변화되어왔다. 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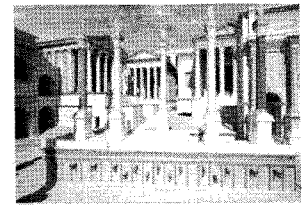
에서 검투사의 경기가 행해지던 관습이 있었으므로 그리스와는 다른 형식으로 공간이 형성되었다. 따라서 경기장 둘레를 넓은 간격의 기둥이 둘러싸도록 배치하고 주랑(colonnade)에는 점포들을 배치하였고 이층에는 관람과 동시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발코니를 설치¹⁹⁾하였다.

포룸의 규모는 사용하는 데 협소하거나 군중이 너무 적을 경우 빈 공간으로 보이지 않도록 사용인원에 맞추어 건립되어야 하는데 폭은 전체길이의 2/3정도가 일반적이었고 그 형태는 장방형이며 평면은 용도에 맞게 계획되었다. 포룸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바실리카는 가장 따뜻한 남측에 배치²⁰⁾하므로 시민들과 상인들이 날씨와 관계없이 편리하게 접근하여 활동하도록 배려하였다.

바실리카의 진입은 크게 장면에서의 진입과 단변에서의 진입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그림 3>의 파노 바실리카와 같이 초기 건물들은 장변진입으로 이루어지다가 후에 장변진입보다는 단변진입 형태로 바뀌는데 초기의 가장 중요한 사례가 <그림 5>의 폼페이 바실리카이다. 이는 상하로 긴 포룸의 하단 우측에 위치한 바실리카로 단변이 포룸에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삼랑식 단변진입 바실리카를 형성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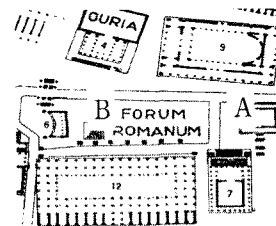


<그림 8> 포룸로마눔 전경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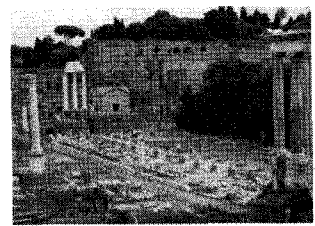


<그림 9> 포룸로마눔 전경 B

고대의 바실리카 유적들은 기초만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상부구조물이 보존되어 있는 경우도 벽체 일부 정도만 남아있어 전체입면의 복원이 거의 어려웠으나 최근 고대 도시들을 복원하여 디지털로 보여주는 작업의 일환으로 고대 로마의 포룸 로마눔과 주변 건물들이 복원되어 <그림 8, 9>와 같이 3차원영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 10> 포룸 로마눔 배치



<그림 11> 바실리카 울피아 유적

이에 따라 포룸 로마눔의 주요 건물인 바실리카 울리

18) Frank Seat, Roman Architecture, Cornell University Press, 1983, p.2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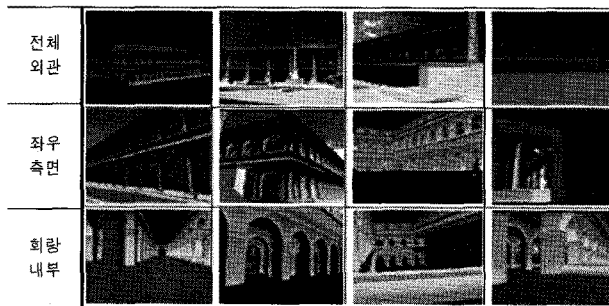
19) M.H. Morgan 편역, Vitruvius 건축십서, 오덕성 역, 기문당, 1989, p.141

20) Ibid., p.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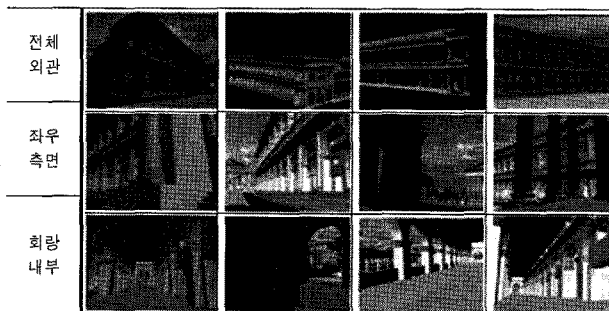
아와 에이밀리아 등의 복원이 이루어짐으로 그 건물의 외부공간과 입면 형태를 시각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게 되었다. 바실리카 울리아는 포룸 로마눔의 남서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는 <그림 11>과 같이 기초석과 몇 개의 기둥의 모습이 남아 있다.

<그림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바실리카 에이밀리아는 쿠리아와 같이 병렬로 배치되어 있고 바실리카 울리아²¹⁾는 사크라 비아(Sacra via) 도로를 경계로 상부면이 포룸의 장변에 접하여 배치되어 있다.

<그림 8>의 전경 A는²²⁾ <그림 10>의 A지점 즉 줄리어스 시저 신전에서 로마포룸을 내려다본 전경으로 좌측에는 바실리카 울리아가 복원되어있고 우측에는 바실리카 에이밀리아의 일부만 보인다. <그림 9>는 <그림 10>의 B에서 바라본 전경으로 A보다 전면의 위치로 하부에서 서측단부의 신전군(神殿群)들을 바라본 전경이다.



<그림 12> 바실리카 울리아 복원도



<그림 13> 바실리카 에이밀리아 복원도

<그림 12>는 3차원 영상으로 복원된 바실리카 울리아의 모습으로 12개의 사진으로 전체 외관과 좌우측면 그리고 주변회랑과 내부의 모습들을 보여 주고 있고 <그림 13>은 동일한 패턴으로 바실리카 에이밀리아를 포룸 로마눔 광장에서 바라본 모습들²³⁾을 보여주고 있다.

21) David Watkin, The Roman Forum, 2009, pp.98-100
 22) <그림 8>과 <그림 9>는 Visual World Heritage Laboratory에서 복원한 고대 로마도시의 모습으로 포룸 로마눔 부분이다. 이 내용은 다음의 인터넷사이트에서 인용함. <http://www.romereborn.virginia.edu/gallery-current.php>
 23) <그림 11>과 <그림 12>는 UCLA 대학의 Cultural Virtual Reality Laboratory에서 포룸 로마눔의 고고학적 발굴과 현재 남아있는 유적을 과학적으로 조사하여 삼차원 디지털로 복원한 것으로 다음 사이트에서 인용함. <http://dlib.etc.ucla.edu/projects/Forum>

3.4. 바실리카의 유형분류 이론과 정리

지금까지 로마 공공 바실리카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표 3>와 같이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되어왔다.

먼저 퍼킨스(Perkins)는 건물의 사용재료, 규모, 장식 등의 차이에 따라 황제들이 건축한 대리석 형(marble style)과 일반 서민들을 위한 일반형(common style)로 분류하였다. 로마와 지방수도에 세워진 대규모 바실리카는 대리석 형에 속하고 지방도시의 포룸에 부속된 소규모 바실리카는 일반형에 속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후자에 속하는 건물도 내부의 기둥이나 장식은 화강암이나 대리석으로 처리된 경우가 많아 두 양식을 정확하게 구분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3> 바실리카 유형의 기존 분류

분류 명칭	형식	특성
Perkins의 분류 ²⁴⁾	황제 대리석 형	규모가 크고 앵스가 1-2개 형성된 화려한 양식
	일반 시민 형	규모가 작고 돌이나 벽돌이 사용된 검소한 양식
Wheeler의 분류 ²⁵⁾	비트루비우스 형	가로세로비가 작은 중심형 포룸 측에 장변 배치진입
	폼페이 형 (남 이탈리아 형)	중심축이 분명한 장축형 포룸 측에 단변 배치진입
Leroux의 분류 ²⁶⁾	그리스 형	그리스 신전형태와 유사 신랑과 측랑의 구분 명확
	오리엔탈 형	내부 직사각 공간 중심으로 기둥배치 장변진입
Grimal의 분류 ²⁷⁾	홀 형	측랑이 없고 바실리카 전체가 하나의 홀로 구성됨
	아일 형	아일의 개수에 따라 삼랑식, 오랑식 등으로 구분됨

두 번째 휠러(Wheeler)는 비트루비우스 형과 폼페이 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는 평면 형태에 의한 분류로 전자의 유형은 가로세로비가 1:1.5-2 정도 되는 바실리카로 장변과 단변의 길이가 크게 차이가 없어 주로 장변측으로 진입하는 것이 일반적 특성이다. 이는 초기에 건축된 비트루비우스의 파노 바실리카와 코사 바실리카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바실리카가 이 유형에 속한다. 후자는 장변과 단변의 비가 1:2 이상 되어 중심축이 뚜렷하므로 전자의 장변진입과는 달리 대부분 단변 측에서 진입하게 된다. 이에 대한 대표적 것이 바실리카 폼페이이다. 두 유형 각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기능적, 형태적 측면에서 초기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비트루비우스 유형에서 좀 더 다듬어지고 발전된 폼페이 형으로 발전해 나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세 번째 르루(Leroux)는 그리스 형(greek style)과 오리엔탈 형(oriental style)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바실리카의 형태에 따라 분류한 휠러와는 달리 건물의 내부 공간

24) Perkins, op.cit., p.366
 25) Wheeler, op.cit., pp.112-113
 26) Robertson, op.cit., pp.267-268
 27) Pierre Grimal, ed. G. Michael Woloch, Roman Cities,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p.45

특성에 따라 그 유형을 분류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인다. 그리스 형은 단변 측에서 진입하며 신랑과 측랑의 구분이 명확하여 입구에서부터 트리뷰날에 이르는 진입축이 분명히 구분된 유형을 말하며 오리엔탈 형은 이집트 신전이나 페르세폴리스에 나타나는 다주실(hypostyle room)의 형태로 주로 장변 측에서 진입하며 바실리카 중앙 공간을 중심으로 기둥이 한 겹 내지는 두 겹으로 둘러싼 네이브 중심의 바실리카 형태²⁸⁾를 말한다.

건물의 구성으로 볼 때 오리엔탈 형은 네이브를 강조하는 로마 공공바실리카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유형으로 율리아 바실리카를 포함한 대부분의 로마 바실리카가 이 유형에 속한다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부공간이 전후좌우를 둘러싼 사면의 기둥으로 말미암아 입구공간이나 트리뷰날 공간과의 연결이 되지 않고 서로 분리되어 있었다. 이렇게 단절된 내부공간의 통일을 위하여 네이브의 단변 부분의 기둥이 생략되면서 네이브는 진입공간과 앱을 연결하는 전이공간이 되어 신랑과 측랑이 분명한 그리스 형으로 발전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독교 바실리카의 전형적 모습을 보여주는 초기 로마 바실리카 유형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네 번째 그리말(Grimal)의 분류는 아일의 유무에 따른 분류 방법으로 아일이 없는 바실리카는 홀 형, 있는 것은 아일 형으로 분류하였다. 기독교 바실리카에서는 네이브에서 앱스로 이어지는 강력한 중심축을 형성하므로 네이브 아일 유형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로마 공공 바실리카에서는 르루가 분류한 오리엔탈 형과 같이 아일이 4면을 1-2겹으로 돌아가며 4면의 회랑을 이루고 있으므로 주요한 중심축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상기의 기존 분류이론에서 퍼킨스의 분류는 재정적, 재료적 측면의 분류이므로 크게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휠러의 두 번째의 분류 방법은 형태로 보아서는 중요한 요소이나 점점 장축의 폼페이 형으로 통일되어 두 유형 모두 포룸 공간이 있는 방향으로 바실리카 벽면이 개방되어 출입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공통된 배치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로마 공공 바실리카의 평면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은 르루와 그리말의 분류를 종합한 아일이 있는 오리엔탈 형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바실리카가 내부에 기둥을 설치하고 있고 이 기둥의 직경을 기본 모듈로 하여 네이브와 아일 그리고 바실리카의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이다.²⁹⁾ 특히 이 내부의 기둥은 기독교 바실리카와는 달리 좌우 뿐 아니라 전후에도 배치되며 규모에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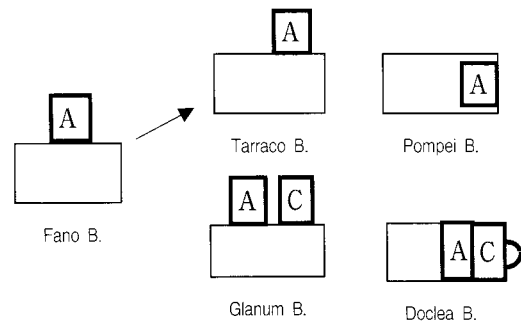
1열 또는 2열로 배치되어 네이브 중심점을 둘러싸는 공간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네이브가 앱스로 다가가는 전이공간의 성격을 가지는 기독교 바실리카와는 다른 로마공공 바실리카만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요약하면 바실리카 교회가 상징성이 높은 앱스 중심의 바실리카라면 로마 공공 바실리카는 실용성이 강조된 네이브 중심의 바실리카라는 점이다.

이상의 기존이론 분석과 로마 바실리카 건축의 유형특성을 종합해보면 아일로 둘러싸인 네이브 중심의 공간구성에 포룸이 있는 방향으로 벽면이 개방되어 주 출입이 포룸공간 측으로 이루어지는 유형이 가장 특징적인 로마 공공 바실리카 평면과 배치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4. 바실리카 평면 및 내부 공간분석

4.1. 바실리카 평면의 변천 과정

초기 바실리카 건물의 원형이 되었던 비트루비우스³⁰⁾의 파노 바실리카 평면은 <그림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심공간은 삼랑식의 장방형에 장측면에 아우구스투스 에이디스가 붙어있는 것이 기본적 형태이었다. 이 신전의 위치는 코사나 파노 바실리카와 같이 장변의 중앙 측 1/2 지점에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상황에 따라 타라코(Tarraco) 바실리카의 경우와 같이 1/3지점에 배치³¹⁾기도하였다. 후에는 폼페이 또는 루시노(Ruscino) 바실리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바실리카 끝 부분에 위치하게 되어 외부에 돌출부가 없는 장방형이 되어 로마 공공바실리카의 중요한 평면 유형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그림 14> 바실리카 평면의 정착과정
A: aedes, C: curia

두 번째 평면유형도 파노 바실리카에서 시작되어 에이디스 옆에 쿠리아 공간이 부가되므로 글라눔 바실리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기능 모두가 바실리카 장변에 동시에 위치하다가 <그림 14>의 도클리어(Doclea) 바실리카와 같이 최종적으로는 건물의 단변 측에 정착되어 추

28) Robertson, op.cit., p.267

29) Walthew. op.cit., p.1

30) Vitruvius, op.cit., p.145

31) Walthew, op.cit., p.253

후 앵스가 있는 로마 또는 기독교 바실리카로 변화하는 중요한 평면유형이 되었다.

4.2. 바실리카 내부 공간분석

바실리카 평면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조사한 총 사이트는 27개이고 조사 바실리카 수는 30개이다. 조사 내용은 회랑유형, 앵스 유무와 개수, 진입방향, 가로와 세로의 비례관계, 바실리카의 규모 등 5개의 영역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 4>에 나타나있다.

회랑 유형은 내부 공간의 형태와 건물 중심축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 바실리카 중 회랑이 하나인 유형 즉 홀형 바실리카가 6개로 전체 2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내부공간이 아직 신랑(身廊)과 측랑(側廊)으로 분화하지 않은 것으로 초기유형이지만 후기 바실리카 중에서 지방에 건축된 소규모 바실리카가 이 유형에 속한다.

삼랑식(三廊式) 바실리카는 18개로 전체 70%를 차지하고 있어 이는 로마 바실리카의 가장 기본적인면서도 전형적 유형으로 신랑과 두개의 측랑으로 나누어진 삼랑식 바실리카임을 알 수 있다. 이 유형은 로마 바실리카 뿐 아니라 후에 기독교 교회건축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진 유형으로 바실리카 건축 유형의 전형을 이루고 있다.

오랑식과 칠랑식은 각각 1개의 사례만 나타나므로 당시 일반적 바실리카 유형이 아닌 특수한 형태로 보인다. 둘 다 지방이 아닌 로마도시 중심에 있는 줄리아스 시저의 율리아 바실리카와 트라야누스 황제의 율피아 바실리카로 제국의 위엄을 나타내기에는 삼랑식으로는 왜소하다고 생각해 보다 규모가 큰 오랑식이나 칠랑식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후의 기독교 교회건축에서도 황제가 출석하는 왕실 직속 교회는 규모가 큰 오랑식이나 칠랑식 바실리카 교회를 건축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기독교 바실리카와는 달리 신랑 좌우에만 회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후좌우 사면에 회랑이 배치된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전체적으로 바실리카 내부 공간이 균등한 위계를 갖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회랑이 좌우측 두 방향만 형성된 바실리카는 중심축이 강하게 나타난 반면 회랑이 전후좌우 사면에 형성된 바실리카는 중심축형성이 비교적 약하게 나타났다

앵스의 유무는 내부 공간의 위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앵스가 없는 바실리카는 비교적 균질의 내부공간을 형성하고 있는 반면 앵스가 형성된 바실리카는 공간의 위계가 뚜렷해 보인다. 재판관 또는 중요한 인물들이 위치하는 앵스는 초기 바실리카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후기의 건물일지라도 상당수의 바실리카에 앵스가

형성되어있지 않다. 전체 중 앵스가 없는 건물이 20개로 66.6%나 되어 조사대상 바실리카의 2/3 가까이 앵스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바실리카 평면 분석표

번호	바실리카	회랑 유형	앵스	진입 방향	비례 (W/L)	바실리카규모 (W×L= m ²)
1	Aemilia	삼랑식	무	장변	1:2.0	40×80=3,200
2	Pompei	삼랑식	무	단변	1:2.6	20×51=1,020
3	Ostia	삼랑식	무	장변	1:1.7	30×50=1,500
4	Julia	칠랑식	무	장변	1:2.3	46×105=4,830
5	Small Basilica	삼랑식	무	장변	1:1.7	22×28=616
6	Domus Flavius	삼랑식	1	단변	1:2.0	22×48=1,056
7	Veleia	홀형	무	장변	1:2.9	12×35=420
8	Ulpia	오랑식	2	장변	1:2.1	60×128=7,680
9	Maxen-tius	삼랑식	2	장변	1:1.4	64×90=5,760
10	Doclea	홀형	무	단변	1:3.3	15×50=750
11	Leptis Magna(Old F.)	삼랑식	무	장변	1:1.9	26×50=1,300
12	Serveran	삼랑식	2	장변	1:2.0	34×70=2,380
13	Cyrene	삼랑식	1	장변	1:3.9	22×85=1,870
14	Timgad	홀형	1	장변	1:2.3	18×41=738
15	Djemila, Severi	홀형	1	단변	1:3.0	10×30=300
16	Conimbriga	삼랑식	무	장변	1:2.0	10×20=200
17	London	삼랑식	2	장변	1:3.3	45×150=6,750
18	Caerwent	홀형	무	장변	1:3.3	12×40=480
19	Nicopolis-ad-Istrum	삼랑식	무	장변	1:3.0	25×75=1,875
20	Lugdunum	삼랑식	무	장변	1:2.6	25×65=1,625
21	Izmir	삼랑식	무	장변	1:5.9	27×160=4,320
22	Bostra	삼랑식	1	단변	1:1.1	23×25=575
23	Trier	삼랑식?	1	단변	1:2.0	29×58=1,809
24	North (Corinth)	삼랑식	무	단변	1:2.8	25×70=1,750
25	Julian (Corinth)	삼랑식	무	장변	1:1.7	28×48=1,344
26	South (Corinth)	삼랑식	무	장변	1:1.5	32×48=1,536
27	Ardea	삼랑식	무	장변	1:2	52×26=1,352
28	Ruscino	삼랑식	무	장변	1:2.7	55×20=1,100
29	Cosa	삼랑식	무	장변	1:1.3	36×28=1,008
30	Glanum	삼랑식	무	장변	1:2	48×24=1,152

앵스가 있는 바실리카도 내부만 반원형이고 외부는 장방형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어 로마 공공바실리카에서는 앵스의 기능이 크게 발달하지 않았다고 보이며 앵스 대신 전면에 단상이나 트리뷰날의 장방형공간이 앵스의 기능을 대신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로마 공공 바실리카가 보여주는 중요한 건축적 특성 중 하나로 천상을 상징하는 반원형 앵스를 화려하고 중요하게 배치한 기독교 바실리카와 비교해 볼 때 외형이나 상징적 모양보다는 실용적 기능을 강조하는 로마 바실리카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그 이유는 로마 바실리카의 기능이 시장이나 시민모임의 성격이어서 위계성 없는 개방공간을 지향

한 결과로 생각된다.

앱스가 있는 바실리카 경우 한 개의 앱을 가진 건물이 6개로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2개의 앱을 가진 경우는 4개로 1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건물의 규모가 커지면서 바실리카 양측에 앱을 배치하는 바실리카 율피아와 같은 형태와 진입축이 양측에서 이루어지면 장축과 단축 두면에 각각의 앱스가 배치되는 콘스탄티누스 바실리카 형태로 나타났다. 앱스의 개수는 내부공간의 축과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양측에 대칭으로 앱스가 있는 경우는 내부공간이 전후의 위계 없이 균질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대각선으로 두 개의 앱스가 배치된 경우는 단일축이 아닌 두 개의 축으로 내부공간이 분할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건물의 진입축을 분석한 것은 포룸공간과 진입공간과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이 분석 결과 앱스와 더불어 로마 바실리카의 개방적이고 다양한 접근성을 가지는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었다. 전체 바실리카 중 단변진입은 23%에 해당되는 7개에 불과하였고 전체 77%에 해당되는 23개 건물이 장변 진입의 유형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는 거의 90% 이상의 단변 진입을 보여주고 있는 기독교 바실리카와 비교해볼 때 로마 바실리카가 가지는 현저한 건축적 특성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결과는 강력한 종교적 위계성을 보여주고 있는 바실리카교회와는 달리 많은 사람의 다양한 접근을 필요로 하는 로마 바실리카의 공공적 성격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바실리카의 진입형식에도 영향이 있는데 기독교바실리카는 회랑형에 따라 그 진입방식이 결정되는 것에 반해 로마 공공 바실리카는 포룸의 위치와 바실리카의 공간배치에 따라 그 진입형식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평면분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바실리카의 가로세로비의 조사 결과는 최소 1:1.1에서 최대 1:5.9까지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전체평균 1:2.3으로 안정된 비례를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비트루비우스가 가장 이상적인 가로세로비라고 밝힌 1:2-1:3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실리카의 중요도를 평가하는 하나의 지표인 면적분석에서 로마 공공 바실리카의 규모는 최소 120㎡에서 최대 7,680㎡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1,000㎡ 미만의 소형 바실리카가 8개로 27%를 차지하고 있었고 1,000㎡에서 3,000㎡규모의 바실리카가 16개로 53% 그리고 3,000㎡ 이상의 대형 바실리카도 6개로 전체 20%를 차지하고 있어 바실리카의 규모는 전반적 소형에서 대형까지 골고루 나타나고 있었고 전체평균 2,009㎡이다. 특히 황제가 위치한 로마의 황제 바실리카는 최소 3랑식에 건축규모가 평균 5,000㎡ 이상의 대형 건물로 전체평균 2,009㎡에 비해 2.5배 이상 되어 로마에

위치한 중요건물은 상대적으로 대규모 건축공간을 형성하고 있었다.

상기의 내용을 종합해볼 때 바실리카의 성격과 위치 등에 따라 각각의 특성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가장 전형적인 로마 바실리카 유형은 앱스가 없는 오리엔탈 유형의 삼랑식에 포룸축이 개방된 측면진입 형태가 로마 바실리카가 보여주는 가장 현저한 건축적 특성으로 나타났으며 가로세로비 1:1.2-3의 범위 그리고 면적은 1,500-2,000㎡정도가 가장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바실리카 유형으로 밝혀졌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붕이 현존하는 건물들이 많지 않아 바실리카 천정고를 측정할 수 없어 내부 공간 분석이 어려웠으나 대체적으로 신랑의 폭을 넘는 천정높이를 가졌던 것으로 추정되며 후에 기독교 바실리카 교회로 넘어오면서 구조기술의 발달과 종교적 신비감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바실리카 내부의 천정고가 더 상승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포룸을 중심으로 한 바실리카 배치 유형의 분석을 통하여 초기에는 신전 중심으로, 다음에는 신전과 바실리카가 대등한 배치로, 그리고 후기에는 신전은 상징적 의미만 가지고 시민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바실리카 중심의 배치로 변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로마 바실리카는 세 단계의 중요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는데 초기(BC 1세기)에는 바실리카와 에이디스가 분리된 파노 바실리카, 중기(AD 1세기)에는 에이디스가 바실리카 내부에 위치한 폼페이 바실리카, 후기(AD 2세기)에는 에이디스와 쿠리아까지 건물내부로 들어오고 외부에 작은 앱스까지 형성되어 기독교 바실리카의 원형이 된 도클리어 바실리카로 파악된다.

로마 공공 바실리카의 내부공간은 그 기능과 위계에 있어서 트리뷰날이나 에이디스가 중심이 아니라 네이브를 한 겹 또는 두 겹의 기둥으로 둘러싸 중앙공간을 형성하므로 철저히 네이브 중심의 공간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났다. 기독교 바실리카가 상징성이 높은 앱스 중심의 바실리카라면 로마 공공 바실리카는 실용성이 강조된 네이브 중심의 바실리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이론 분석과 로마 바실리카 건축의 유형특성을 종합하면 르루가 오리엔탈 형으로 분류한 기둥으로 둘러싸인 공간에 장변축을 개방한 바실리카 유형이 바실리카 이용자의 동선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로마 공공 바실리카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보여진다.

로마 공공 바실리카의 평면 분석을 통하여 주 진입은 77%정도가 장변 측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공간의 개방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약 70%정도가 앵스가 없는 장방형 바실리카로 상징성보다는 기능성을 강조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회랑은 삼랑식이 일반적이며 가로세로비는 전체 평균이 1:2.3으로 비트루비우스가 제안한 1:2-1:3의 비례범위를 비교적 충실히 준수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의 대부분이 바실리카 건물의 초석을 중심으로 한 평면적 발굴 자료들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분석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진전된 발굴결과와 복원연구를 통해 좀 더 심도 있는 추후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1. Christopher Vaughan Walthew, A Metrological Study of the Early Roman Basilicas, the Edwin Mellen Press, Mellon Studies in Architecture Vol. 8, 2002
2. Frank Seat, Roman Architecture, Cornell University Press, 1983
3. Ancient Roman Architecture: Colosseum, Architecture of Ancient Rome, Vitruvius, Roman Villa, Fishbourne Roman Palace, Basilica, Books LLC, 2010
4. David Watkin, The Roman Forum, 2009
5. J. B. Ward-Perkins, Roman Imperial Architecture, Penguin Books Ltd, 1983
6. Mortimer Wheeler, Roman Art and Architecture, Frederick A. Praeger, Inc., Publishers, 1964
7. D. S. Robertson, Greek & Roman Architecture, Brooke Crutchley, 1972
8. L. Michael White, The Social Origin of Christian Architecture, Trinity press international, 1990
9. Matilda Webb, The Churches and Catacombs of Early Christian Rome. Sussex Academic Press, 2010
10. M. H. Morgan 편역, Vitruvius 건축십서, 오덕성 역, 기문당, 1989
11. 박학재, 서양건축사, 상조사, 1981
12. 임석재, 서양건축사, 땅과 인간, 북 하우스, 2003
13. 김철수, 도시공간계획사, 기문당, 2009

[논문접수 : 2010. 08. 27]

[1차 심사 : 2010. 09. 12]

[2차 심사 : 2010. 09. 27]

[3차 심사 : 2010. 11. 11]

[게재확정 : 2010. 12. 10]